

# 일본 후생성의 기업용 재택근무 지침, 시간대 유연하게

## - 노무관리 규칙 책정 촉구

2021/03/17 일본경제신문

후생노동성은 월내에 텔레워크(재택근무)에 관한 기업용 가이드라인(지침)을 개정. 신형코로나의 감염확대로 텔레워크가 확대되고 있지만 도입의 정도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게 현실임. 애매했던 노무관리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선행하는 기업의 대처를 정착시키고, 주저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내각부에 의하면 2020년 12월 시점에서 텔레워크를 실시하고 있는 취업자는 전국에서 21.5%, 신형코로나 감염확대전의 2019년 12월에 비해 10%p 이상 상승했음. 도쿄도에서는 2021년 2월후반 시점에서 약 60%의 기업이 도입, 텔레워크가 주 5일로 「오피스外가 주류」라는 사람이 20%넘게 달함. 육아·개호와 일의 양립과 통근시간의 감소에 따른 효율화라는 감염방지 이외의 메리트도 실감하기 시작했음.

다만 도입의 정도에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 내각부의 2020년 12월 조사에 의하면, 업종별로 가장 실시율이 높은 데는 정보통신업으로 65.6%. 2019년 12월은 30%이하였지만 급속히 실시율이 상승했음. 오피스빌딩 중개 대기업인 三鬼商事에 의하면 도심 5구의 오피스 공실률은 2월에 5.24%로 5년 10개월만의 고수준으로, 그중에서 IT(정보기술)기업의 입지가 많은 東京都 渋谷区는 5.55%로 높았음.

그 외의 업종은 실시율이 대체적으로 50%를 하회하며, 전기·가스·수도업이 35.2%, 금융·보험·부동산도 29.0%, 제조업 전체로도 28.9%에 그침. 보육관계나 의료, 복지, 운송업은 실시율이 10%에 미치지 못함. 교육, 학습지원업은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40%를 넘었지만 2020년 12월은 21.8%까지 떨어짐.

이런 상황을 감안, 후노성은 16일 기업에 텔레워크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노동정책심의회에 제시했음. 3월중에도 적용됨. 현행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상정하기 어려운 등의 과제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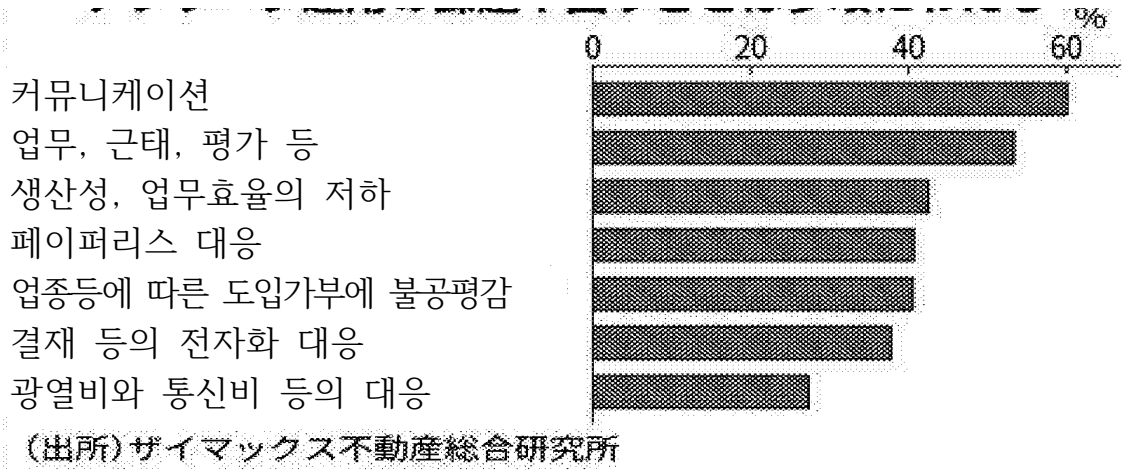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우선 규칙을 노사 협의로 텔레워크 시의 취업규칙을 정하도록 함. 사원의 노동시간을 어떻게 파악할지가 과제이지만 정보기기의 사용상황을 파악하는 방법과 함께 자기신고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명확히 함. 생활 사이클에 맞춘 업무시작과 마치는 시간의 유연한 조정과, 가사 등으로 중간에 빠지는 시간 분은 마치는 시간을 늦추는 운용방법도 명시. 조조와 심야도 유연하게 활용해서 가사나 육아, 개호 등의 개별 사정에 맞춘 업무방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예컨대 텔레워크의 대상이 되는 사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정규와 비정규 등 고용형태의 차이로 도입의 가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촉구. 인사평가 관점에서는 출근하는 사람의 평가를 높게 하거나 소정의 시간외에 메일에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를 낮추거나 하는 대응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구체적 사례를 넣었음.

자이맥스 부동산종합연구소가 1~2월 수도권 10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근무환경의 개선을 실시·예정하는 기업은 약 80%에 달했음. 위성오피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기업도 50%넘었음.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이런 움직임을 지원함.

일단 보급을 위해서는 과제도 많음. 신입사원의 입사와 인사이동이 있는 봄은 새로운 직장에서도 고립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충실이 불가결함. 장시간 근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대처도 요구됨. 신가이드라인은 휴일과 심야노동에는 할증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향후 본격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노무관리와 인사평가를 노동시간 기준으로 측정하는 구식 형태에서 어떻게 벗어날지의 과제에 대처가 필요함.

### <텔레워크 운용의 과제와 어려움 점은 다양하게 미침>



###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노사에서 노무관리 규칙을 미리 결정
○ 업무 플로의 전자화를 추진
○ 텔레워크 통신비 등 비용부담도 고려
○ 심야·조조 포함 업무시작과 업무 종료 시간은 유연하게 설정
○ 장시간 노동대책으로 업무시스템 접근 제한 등도 검토
○ 건강상담 체제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조치 필요